

여러분

작년은 가나자와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맹이 인정된 경사스러운 해였는데, 당연히 그것이 끝이 아닌 스타트라는 기개를 가지고 앞으로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프랑스 낭트에서 발상한 클래식 음악제, 라·폴·줄네를 알고 계십니까? 가나자와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호가쿠¹, 하야시² 등이 지금도 숨쉬는 도시인데, 그 외에도 20 년 이상 전부터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OEK) 라는 클래식 악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OEK 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라·폴·줄네 가나자와도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합니다. 시내의 여러 행사장을 돌면서 가벼운 기분으로 클래식을 즐기는 이 음악제도 완전히 봄의 가나자와 축제로 정착해 왔습니다. 개최기간은 4 월 29 일(목·경축일)~5 월 5 일(수·경축일)입니다. 부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souzoutoshi@city.kanazawa.lg.jp

↓

kikaku@city.kanazawa.lg.jp

¹ 호가쿠: 일본의 전통 음악

² 하야시: 연기의 장단을 맞추거나 흥을 돋우려고 연주하는 반주 음악